칼 럼

김윤호 논설위원 · 행정학박사 ·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제천 화재 참사를 보고

지난 21일 오후 충북 제천시 8층짜리 스포츠시설 건물에서 불이 나 29명이 죽고 30여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이 났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 푸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청천벽력(靑天霹靂)의 불행을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리고 옷깃을 여미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

언제나 죽은 자는 말없이 떠나지만, 살아남은 자들은 할 일이 있게 마련이다. 화재 원인도 조사해서 고칠 것은 고쳐야 하고, 잘못한 사람들은 벌도 주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는 발전하고 사회정의가 바로 서기 때문이다. 지나간 일을 왜 들추냐고 나무랄 일이 아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고, 잘한 자는 상을 주고 잘못한 자를 벌주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사회는 무정부 상태, 무법천지가 되어서 아무에게도 좋은 세상이 아니다. 무질서와 불안, 고통과 공포가 우리를 지배하는 산지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건이 나면 합법적, 합리적으로 잘잘못을 따져서 상 줄 사람과 벌 줄 사람을 가려내지 않을 수가 없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모양새가 되는 경우가 많으나, 언젠가 내가 주장했듯이 소 잃은 후에라도 외양간을 잘 고쳐야 한다.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지 안 해서 또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남의 산에 있는 돌을 보고도 교훈을 얻는 타산지석(他山之石)과 남의 잘못을 보고 자기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깨우침을 얻는 반면교사(反面敎師)의 정신은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명심하고 간직해야 할 좌우명(座右銘)이나 처세훈(處世訓)으로 삼아야 한다. 날마다 일어나는 수많은 교통사고나 화재사고 등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사건 사고는 모두가 예외 없이 예고편(豫告篇)이 없다. 전혀 뜻밖의 시간과 장소에서 순식간에 돌발적으로 일어난다.

참변과 불행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엎드려 잠복해 있다가 우리가 안일(安逸)하거나 방심(放心)하거나 교만할 때, 예고 없이 우리를 기습한다.

여자들이 많이 있었던 2층의 비상구가 목욕 용품으로 막혀 있어서 탈출을 못해서 20여명이 사망했다. 연기나 고온이 되면 물이 쏟아져야 할 2층의 스프링쿨러는 고장이 나서 작동되지 안했다. 제천시에서는 제일 시설이 좋은 스포츠센터 안에 있는 사우나 시설이다. 출동한 소방관들은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에 2층 통유리를 깨고 사람들을 구조하지 안했다는 비난을 유가족들로부터 듣고 있다.

더블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는 '소방 인원과 장비를 확충하도록 소방예산을 늘리겠다. 누적된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장례식장과 화재 현장을 방문하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현장 대응을 잘못해서 인명 피해가 컸다. 세월호와 똑같다'고 정부를 추궁했다. '욕이라도 들어드려야 될 것 같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먼저 현장과 장례식장을 찾아가서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조문했다.

경찰은 과실치사상(過失致死傷), 건축물 불법 증축 등의 혐의로 건물주와 건물 관리인을 구속했다. 소방전문 관리업체도 압수수색을 하고 부실 관리 점검을 조사하고 있다.

12월 26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들은 청와대 앞에까지 가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책임자의 처벌, 소방방재청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교체'를 요구했다.

더블어민주당은 '제천 화재 참사를 정쟁(政爭)에 이용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세월호 참사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잃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도, 정치권도 관심을 갖고 찾아가고 원인을 조사하고 책임을 추궁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애쓰는 것이다.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큰 슬픔과 아픔을 생각하면, 그 무슨 말이나 대책이 필요하겠는가. 그러나 산 자는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다음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야 한다.

어느 여자 희생자의 소지품 중에 남편에게 줄 흰 백설기 떡 두 덩어리가 나와서 보는 이의 가슴을 적시고 있다. 봉사활동을 하고 받은 떡을 먹지 않고 떡을 좋아하는 남편에게 줄려고 가지고 있다가 참변을 당한 것이다. 입고 갔던 남편의 상의 옷까지도 불에 그을리거나 타지 않고 온전히 발견된 것을 보고 적절한 구조가 있었다면 구조되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초등학생 때 많이 보았던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표어가 생각난다.

어디 불조심뿐이겠는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동차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자나 깨나 차(車) 조심'도 정말 중요하다. 지난 3월 25일, 나 자신도 교통사고로 죽을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운전을 하던지, 운전을 하지 않던지를 떠나서 '차 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싶다.

나의 교통사고 경과는 다른 기회에 말하고자 한다.

社 說

'저출산고령사회위' 활동 기대

결혼연령도 낮아지고 있지만 더욱 큰 문제는 신혼부부들이 애 낳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회에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현실하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한다니 여기에 거는 기대가 만만찮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발등의 불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제6기 위원회가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제6기 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위원 7인(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창엽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박신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등 민간위원 17인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민간위원 수는 10인에서 17인으로 늘리고, 그동안 정책에서 소외되어 온 청년세대와 여성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조소담 미디어 닷페이스 대표 등 20대 위원과 여성 위원 비율을 높였다.

정부는 위원회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다루는 정책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사무처를 독립 신설하고 조직과 기능을 확대한 바 있다.

영화 예고편 형식으로 제작된 홍보물에 출연한 문 대통령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등은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전한다. 저출산과 고령문제 해결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현안이 된지 오래다.

정부의 이번 위원회가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배우는 千 字 文

捕	잡을	포
獲	얻을	획
叛	배반할	반
亡	망할	망

捕 獲 叛 亡

▷뜻: 배반하고 도망하는 자를 잡아 죄를 다스림.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화재없는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자

겨울철은 전통시장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많이 일어난다. 전통시장은 상인들의 보금자리며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공간이다.

전통시장은 특성상 건물 밀집도가 높고 출입구와 통로가 좁은데다 시장 내에 적재된 상품이 많아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진화하지 못한다면 대형화재와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화재원인은 무질서하게 연결된 전기배선, 수없이 드나드는 상인과 손님들이 버린 담뱃불, 난방을 위해 사용하는 난로 등이 주된 이유이다.

시장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화기 등 법정 소방시설을 완비하고 자체점검을 철저히 하며, 소방시설 사용요령 등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전기시설을 함부로 설치하거나 무질서한 전기배선을 하지 않아야 하며 중앙난방을 설치하여 겨울철 이동식 석유난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화재시 소방차의 진입로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좌판을 설치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대규모 시장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설비 등 적합한 자동소화설비를 충분히 설치하도록 해야겠다.

전통시장 상인 등 관계자들은 "안전도 투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화재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사시를 대비한 소화기 등 소방시설 사용법에 능숙하게 전통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 야겠다.

또한 '나 하나 쯤이야', '설마'라는 생각으로 생명의 길인 소방차 통행로를 막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겠다.

화재는 순간의 방심으로 일어날 수 있으며 특히나 다수인이 출입하는 전통시장은 위험요소가 상시 존재하는 공간이다. 위와 같은 안전의식으로 전통시장 화재 예방에 힘써야겠다.

최석규 / 담양소방서 방호구조과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湖南新聞
대표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 222-5547
팩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5층)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정재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논설실장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